



이승돈 농진청장, 지역 농산물 가공·수출 현장 방문

‘케이(K)-푸드’ 열풍 속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과 수출 현장을 살펴보는 행사가 마련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4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을 방문해 냉동 감밥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확대와 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 등에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은 지역에서 생산한 쌀, 마늘, 양파 등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냉동 감밥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급속 동결 및 수분 제어 기술을 적용해 해동 후에도 재료 고유의 맛과 식감을 살리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 감밥 소비기회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했다. 이 회사의 제품은 현재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민원실에서 친절행정 실현 교육

남원시는 15일, 민원실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행정 실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소개된 여권담당 감찬희 주무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업무 중 실제로 겪었던 민원 상황과 응대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진행. 민원 응대 상황에서의 마음가짐, 공감과 배려를 통한 소통법, 작은 관심이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응대 노하우를 공유,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시민의 칭찬으로 시작된 현장 경험을 함께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였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언어장애 청소년 가정에 의료지원금 전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농업인 가정에 희망이음 의료지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가정은 “치료를 지속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었다”며, 농협의 도움으로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남원농협의 희망이음 의료지원은 농협 도농상생운동본부 주관해 서울 영등농협의 후원을 받아 전북농협과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는 뇌병변장애 아동 가정을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준항마을 이장, 사랑의 햅쌀 기부

남원시 운봉읍은 관내 준항마을 소대권 이장이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햅쌀 10kg 37포(1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대권 이장은 9년 동안 지역에 봉사하고 있으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식사를 위해 햅쌀과 식자재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소대권 이장은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군민에 대한 7가지 약속’ 성과 공유

임실군의회-임실 시민·사회단체연합회 간담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13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임실시민·사회단체연합회(상임대표 박재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의정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종민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연합회 측 12명 등 총 18여 명이 참석하였다. 장종민 의장은 군민과의 약속 이행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백지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 등 현안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임실 시민·사회단체 연합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을 위해 민간·의회·행정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역 내 갈등 이슈로 떠오른 “초고압 송전선로” 등 민감한 군정에 민의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장종민 의장은 “군민과의 소통이 곧 의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의회는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사회 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에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 진북동, 양평해장국 아중점 착한가게 현판식

전주시 진북동(동장 조배수)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희)는 지난 15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한 ‘자연장가 양평해장국 아중점(대표 최용재)’에 함께 방문해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 현판식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는 매달 3만 원 이상 기부하여 우리 동네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착한가게’ 인증현판을 지원하며, ‘착한가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관내 복지시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된다. 최용재 자연장가 양평해장국 아중점 대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작은 나눔이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며,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남원국제드론제전 안전점검

남원시는 15일, 여성친화도시 제6기 시민참여단(단장 이은진)이 오는 목요일부터 개최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with 로봇)”의 성공적인 진행과 안전한 행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장 내 주요 시설과 장비, 안전장치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제6기 시민참여단은 3개분과(안전·돌봄·알자리) 30명이 활동하는 민·관협력 성인지적 시민정책 참여기구로, 지역사회 내 여성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시민참여단의 안전 점검으로 드론제전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음악동호회, 가을음악회 개최

남원시 주천면 음악동호회는 15일,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 맞이하기 위한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면민으로 구성된 음악동호회는 지난해부터 정기공연과 마을 경로당 순회공연 봉사를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풍기타, 색소폰 연주, 노래자랑 등 알찬 구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 여가생활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 관광객은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지리산 초입에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 자동차 선별장 20일부터 본격 운영

순창군이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콩 품질 향상을 위해 구립면 사골에 위치한 공 자동차 선별장을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앞두고 센터는 선별장에 대한 시설 점검과 수리 등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이번 공 자동차 선별장은 특히 농촌의 지속적인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kg 포대 작업은 물론, 톤백(1톤 단위 대형 포장) 작업도 가능하여 콩 수확 후 선별에 드는 과도한 노동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직접 선별장을 이용한 한 농가는 “콩 수확 후 선별과 포대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동차 선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노동 부담이 크게 줄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순창=이왕희 기자

“어려운 노인으로”… 완주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지회장 김영기)가 주관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려운 노인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에 개최됐다. 15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윤수봉·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조영민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50여명 각 기관장과 관내 어르신과 유관기관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존경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본 행사에 앞서 완주공립학교(교장 김종덕)의 사물관극, 판소리, 가요, 북춤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진행돼 △군수표창 14명 △의장상 2명 △중추원장상 3명 △지회장상 15명 등 총 34명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장은 올해 “폭염과 풍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노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오늘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까지의 어르신들의 지혜와 헌신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노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오늘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까지의 어르신들의 지혜와 헌신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무주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은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15일 제29회 노인의 날(10. 2.) 기념 행사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주관하고 무주군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회원 등 2천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주계음유회 공연과 현대관 어우름 댄스 등 식전공사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초대가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노인강령 내용을 토대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효친경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힘을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무주읍의 장진환 씨(내도로), 무풍면의 김수현 씨(상하길), 설천면의 김춘자 씨(구천동로), 신현순 씨(하행지길), 적상면 박문수 씨(삼방로), 송두성 씨



(치목길), 안성면의 한상준 씨(용주길), 부남면의 김용봉 씨(장삼재로)가 모범 노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돼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무주를 신현두 씨(굴전길), 무풍면의 하정수 씨(속동길), 설천면의 최규규 씨(무설로는)는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2회 지평선배 전국줄다리기대회 성황리 개최

하늘과 땅 그리고 나를 만나는 곳,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지평선축제 기간인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제12회 지평선배 전국줄다리기대회’가 열렸다. 농경문화축제에 걸맞은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줄다리기대회가 열려 축제와 스포츠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최하고 김제스포츠클럽, (사)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가 주관했으며 26개팀 300여명의 선수 및 코치, 임원들 그리고 대만초청팀이 특별히 참가했고 대국 줄다리기협회와 대한민국 줄다리기협회 임원들이 방문해 축제장을 빛냈다. 대회 결과는 지역협회부 1위-전주시협회, 2위-김제시협회, 공동 3위-나주시협회, 부안군협회 팀이 남자부 1위-대만팀(초청팀)이 수상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무주군-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용품 등 전달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병식),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무주군 농업 생산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안전용품 및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지난 14일 안성면 외국인 숙소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무주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지원하고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전하고자 안전용품 100만원 상당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으며 전달물품에는 안전조끼, 장갑류, 파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치킨 및 음료 간식을 제공하는 등 따뜻한 격려와 상호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동열 조합장은 “무주농업에 큰힘이 되어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협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